**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AI 스타트업 플라잎과 상생협력 MOU 체결**

- 양사가 보유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산업용 로봇 솔루션 패키지 개발 예정

- 자율제조 및 조립 솔루션 고도화…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대표 이정호)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플라잎과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로봇을 활용한 산업용 솔루션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이동형 양팔로봇에 플라잎의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고도화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제조 및 조립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AI 전문가용 연구 플랫폼 RB-Y1를 정식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RB-Y1은 연구용 플랫폼으로써 인간의 움직임과 유사한 부드러운 동작을 위해 한 팔당 7 자유도를 갖는 양팔을 가지고 있다. 폭넓은 작업반경을 위해 6 자유도의 외다리를 가지며, 바퀴형 모바일 플랫폼을 갖춘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다. 자율 이동을 위해 라이다(LiDAR)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으며 AI 개발자가 연구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와 옵션을 제공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의 3차원 인식 센서와 그리퍼, 티칭 디바이스는 옵션 사항으로 함께 별도 판매한다.

플라잎은 로봇의 눈과 행동, 그리고 감각에 대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완전 자율형 로봇을 구현하는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다. 플라잎의 PALS(PLAiF’s Adaptive Learning System)는 실패를 통해 로봇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기술로 기존 룰베이스 로봇이 풀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만이 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플라잎은 전자제품 라인에서 조립에 대한 문제해결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과 PoC를 실시하고, 플라잎의 AI가 탑재된 레인보우로보틱스 RB-Y1을 납품하는 등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는 ”AI를 탑재한 이동형 양팔로봇은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형 양팔로봇을 통해 제조와 이송을 하나로 결합해 자율 제조를 구현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플라잎 정태영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플랫폼과 플라잎의 독자적 AI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에 없던 혁신적 로봇 솔루션의 창출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람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가치있는 일을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